종심주제: 사랑안기 이기상인가

사랑안기 이기상인가

사랑안기 이기상인가 사랑안기 이기상인가 그 다음 주제는 사랑안기 이기상인가 이기상인가 이기상인가

church

Sabbath Afternoon, April 6

기독 일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I will strengthen thee; yea, I will help thee; yea, I will uphold thee with the right hand of my righteousness." KJV – Isaiah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며 도와주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개역 – Isaiah 41:10

"The Saviour's prophecy concerning the visitation of judgments upon Jerusalem is to have another fulfillment, of which that terrible desolation was but a faint shadow. In the last days of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destiny of a world that has rejected God's mercy and trampled upon his law. Dark and fearful are the judgments that are to be poured upon such a world. Fearful are the tokens of God's displeasure. Fearful are the signs of retribution impending. Terrible have been the results of rejecting the authority of Heaven. But a scene of yet more fearful import is to be presented to our view. The records of the past,—the long procession of tumults, conflicts, and revolutions,—the present, with its restless elements ready to burst forth in wrath and in conflict (Isaiah 57:1),—what are these, in contrast with the scenes of that day when the restraining Spirit of God shall be wholly withdrawn from the earth, the restraining hand of God shall be held back, and every passion and Satan's wrath let loose with their behalf, as never before, the results of Satan's rule." GC 36.2

"예수님의 예언에 있어 성전의 파괴는 그것에 대한 심판의 성취를 가져올 것이다. 그 끔찍한 황폐는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였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그의 율법을 짓밟은 세상의 운명이 그 세상에 쏟아질 심판은 어둡고 두렵다. 두려운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표시들. 두려운 보응의 징조들이 임박하다. 하늘의 권위를 거부한 결과는 참으로 끔찍하다. 그러나 훨씬 더 두려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과거의 기록들,—소요, 갈등, 혁명의 긴 행렬,—현재, 그 불안한 요소들이 분노와 갈등 속에 폭발하려고 하는 것,—이것들이 무엇인가, 그 날의 장면들과 비교하면 말이다, 그 날에는 억제하는 성령이 온전히 땅에서 떠나고, 억제하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고, 사탄의 분노가 전에 없이 그들에게 풀어질 것이다, 사탄의 통치의 결과들." GC 36.2

4월 6일 기독 일

A Brokenhearted Savior

상한 마음의 구세주

Read Luke 19:41-44; Deuteronomy 21:17; 34; and John 5:45. What do these passages tell us about the Lord's attitude toward the Jewish people? What should our attitude be toward the Jews? What should our attitude toward God's character do you see?

누가복음 19:41-44; 신명기 21:17; 34, 신명기 5:45 읽어 보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유대인들 향한 태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유대인들 향한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들에 대하여 무엇을 보는가?

"The Son of God himself was sent to plead with the impenitent city. It was the Saviour who, with tears and with a voice that was broken with sobs, pleaded with the people who had slain the prophets before it, the hard-pointed, if not sharp, flint." His guardian care he had lavished it about. His servants had been sent to it, saying, "Behold your house is left unto you desolate." Jesus wrote, "And I have set down in 2 Chronicles 36:15-16. Though when he looked upon it, he could say, "How shall I give thee up, Ephraim? how shall I deliver thee, Israel? how shall I make thee as Admah? how shall I set thee as Zeboim? my heart is turned within me, my repentings are kindled together." Jesus, the great king of heaven, the Lord of glory, the Prince of life, the Redeemer, if thou art destroyed, thou alone art responsible. "Ye will not come unto me, that ye might have life." Jesus wept." GC 36.3

"그분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도시에 간청하기 위하여 보내진 아들이었다. 그것은 눈물과 흐느낌에 깨진 목소리로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죽인 백성들에게 간청하였던 구세주이시다. 그분의 보호하는 돌봄이, 그분의 종들이 그에게 보내졌을 때 그에게 쏟아졌다. 그것은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버려지리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기록하셨다, 2 역대기 36:15-16. 그분이 그를 바라보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하며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하랴 내 심중에 돌이키는 것이 불붙는 것 같도다." 그 하늘의 위대한 왕, 영광의 주, 생명의 왕자, 구속자, 만일 그대가 멸망되어진다면 그대 홀로 책임이 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생명을 얻지 아니하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울으셨다. GC 36.3

4월 6일 기독 일

Christians Providentially Preserved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

"Not one Christian perished i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Christ had given his disciples warning, and all who believed His words watched for the sign of their Lord's departure. When the Roman armies surrounded the city, the Christians saw in this a token that the time of their deliverance was near. Jesus had said, "Whosoever shall be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of him shall the Son of man be ashamed, when he shall come in his own glory, and in his Father's glory, and of the holy angels." Luke 9:26. Those who were watching for the sign of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ere in no danger of being ashamed. Christ had said, "Then let them which be in Judea flee into the mountains." Luke 21:21. The Christians were not to wait till the last moment, when all should be in confusion, when the city should be surrounded by the armies of the Romans, when the roads would be blockaded, and when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m to flee from the city, but they were to be watchful, and at the first token they should be ready to flee. Not one Christian was to be a sufferer by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 Christians were to be preserved in the midst of the city that was to be a prey to the destroyer. The Christians were to be preserved, not because they were better than others, but because they had received the warning and had fled to the place of safety. God's people were not to perish with the wicked." GC 36.4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주님의 떠나심을 기다렸다. 로마의 군대가 성을 둘러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해방의 때가 가까운 것의 표시로 보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있어 올 때에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니" 눅 9:26. 인자의 오심의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위험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눅 21:21.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하였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을 때, 성이 로마의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길이 봉쇄되었을 때, 그들이 성에서 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때,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하였고, 첫 징조에 그들은 도망할 준비가 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희생자가 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자의 먹이가 되었던 성의 한가운데 보존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존되어야 하였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을 것이다." GC 36.4

4월 6일 기독 일

Faithful Amid Persecution

박해 가운데 충성됨

Read Acts 2:41; Acts 6:6, 37; Acts 5:42; and Acts 8:1-8. What do the verses above tell us about the early church? What do we learn about God's plan and God's way it grew so rapidly?

사도행전 2:41, 사도 6:6, 5:42, 8:1-8 읽어 보라. 이 구절들은 초기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When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upon the early church, the brethren were of one mind, one heart, one soul. Their hearts were fully engaged in heart, praying God, and having been filled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 church daily such as should be saved. Christ was their exceeding joy and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joy and rejoicing in their Redeemer. The light of the world shone out from them. They were a terror to evildoers. Satan was enraged at the success of the church, and he stirred up his agents to rise against the church. The apostles encountered them in the church who professed godliness while they were secretly sinning against God. Ananias and Sapphira were in the church, and they were able to make a fair show in the flesh, and were carried away by the church, and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church, and they were carried by the church, and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church, and they were carried by the church, and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church, and they were carried

"That this step was in the order of God, is revealed in the immediate results for good that were seen.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in Jerusalem greatly; and a great company of the priests were obedient to the faith." This ingathering of souls was due both to the greater freedom secured by the apostles and to the zeal and power shown by the seven deacons. The fact that these brethren had been ordained for the special work of looking after the needs of the poor, did not exclude them from teaching the faith. On the contrary, they were fully qualified to instruct others in the truth, and they engaged in the work with great earnestness and success." AA 89.3

"이 조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선한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커지고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번성하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모인 것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일급 집사들이 보여준 열심과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일을 위해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매우 진지하고 성공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AA 89.3

4월 11일 목요일

A Legacy of Love
사랑의 유산

Read John 13:35 and 1 John 4:21. What do the passages reveal about Satan's challenge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in the great controversy? What do they tell us about the essence of genuine Christianity?

요한복음 13:35과 요한일서 4:21을 읽어 보라. 이 구절들은 대쟁투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제기한 도전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This love is the evidence of their discipleship. "By this shall all men know that ye are My disciples," said Jesus, "if ye have love one to another." When men are bound together, not by force or self-interest, but by love, they show the working of an influence that is above every human influence. Where this oneness exists, it is evidence that the image of God is being restored in humanity, that a new principle of life has been implanted. It shows that there is power in the divine nature to withstand the supernatural agencies of evil, and that the grace of God subdues the selfishness inherent in the natural heart." DA 678.1

"이 사랑이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힘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묶을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영향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존재하는 곳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삶의 원리가 심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본성 안에 초자연적인 악의 작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적인 마음에 내재된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DA 678.1

"This love, manifested in the church, will surely stir the wrath of Satan. Christ did not mark out for His disciples an easy path. "If the world hate you," He said, "ye know that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e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his own: but because ye are not of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th you.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un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If they have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they have kept My saying, they will keep yours also. But all these things will they do unto you for My name's sake, because they know not Him that sent Me." The gospel is to be carried forward by aggressive warfare, in the midst of opposition, peril, loss, and suffering. But those who do this work are only following in their Master's steps."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은 반드시 사탄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기억하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복음은 반대와 위험,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공격적인 전쟁을 통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These natural brothers must be fully reconciled to each other before they can lift the reproach from the cause of God that their disunion has caused. "In this the children of God are manifest,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whosoever doeth not righteousness is not of God, neither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He that saith he is in the light, and hateth his brother, is in darkness even until now." Those who labor for God should be clean vessels, sanctified to the Master's use. "Be ye clean, that bear the vessels of the Lord." "If a man say, I love God, and hateth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whom he hath seen, how can he love God whom he hath not seen? And this commandment have we from Him, That he who loveth God love his brother also." 3T 59.4

"이 자연적인 형제들은 서로 완전히 화해해야만 그들의 불화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의 대의에서 비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니니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릇을 맡은 자들아 너희는 깨끗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3T 59.4

4월 1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We cannot know how much we owe to Christ for the peace and protection which we enjoy. It is the restraining power of God that prevents mankind from passing fully under the control of Satan. The disobedient and unthankful have great reason for gratitude for God's mercy and long-suffering in holding in check the cruel, malignant power of the evil one. But when men pass the limits of divine forbearance, that restraint is removed. God does not stand toward the sinner as an executioner of the sentence against transgression; but He leaves the rejectors of His mercy to themselves, to reap that which they have sown. Every ray of light rejected, every warning despised or unheeded, every passion indulged, every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is a seed sown which yields its unfailing harvest. The Spirit of God, persistently resisted, is at last withdrawn from the sinner, and then there is left no power to control the evil passions of the soul, and no protection from the malice and enmity of Sata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s a fearful and solemn warning to all who are trifling with the offers of divine grace and resisting the pleadings of divine mercy. Never was there given a more decisive testimony to God's hatred of sin and to the certain punishment that will fall upon the guilty." GC 36.1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력입니다.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잔인하고 악한 힘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해 감사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성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구속은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서 있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거부한 모든 빛, 경멸하거나 무시한 모든 경고, 탐닉한 모든 열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행위는 뿌려진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끈질기게 저항하는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죄인에게서 물러나고, 영혼의 악한 정욕을 제어할 힘도, 사탄의 악의와 적대감으로부터 보호할 힘도 남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느님의 은총을 경시하고 하느님의 자비의 간청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두렵고 엄숙한 경고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죄인에게 내려질 확실한 형벌에 대해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GC 36.1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